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조명설의 종교교육적 의의

정 현 숙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요 약〉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론에서 하느님(God), 영식(Soul), 물체(Bodies)의 3위계의 실재(reality)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 ‘인간적 이지’(ratio hominis), ‘물질적 이지’(ratio seminales)가 각 실재의 정신적 이치 또는 원리로 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인간이 갖는 앞에는 물질적 이지의 감각에 관한 지식(scientia)과 신적 이지에 관한 지혜(sapientia)의 2가지로 분류한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 행복은 영원한 진리를 앎으로써 가능한데, 이는 신적 이지에 속하는 지혜(sapiens)의 획득으로만 가능해진다. 지혜의 학습은 경험이나 교사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의 가장 독창적인 교육사상은 지혜의 획득이 감각 체험이나, 플라톤적 회상이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느님 또는 그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춤(illumination)으로 가능하다는 학설이다. 그의 신적조명설(divine illumination)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종합한 위대한 교육사상으로, 종교교육의 목적, 원리,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재를 제시한 종교교육의 모형으로 볼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의의가 큰 사상이다.

핵심 주제어: 학습, 종교교육, 지식, 지혜, 신적조명

I. 서 론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서구의 3대 사상가로 꼽힐 만큼 철학과 신학을 비롯한 광범위한 학문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신학자로서 기독교 교리체계를 수립한 교부 신학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로 계승된 헬레니즘과 신구약 성경으로 전승된 헤브라이즘을 종합하여 새로운 사상체계를 정립한 대 사상가였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고대가 끝나고 혼란기에 들어섰을 때 그는 신앙(헤브라이즘)과 이성(헬레니즘)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철학과 신학을 전개함으로써 중세의 사상과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성 안셀무스(St. Anselmus)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중세를 넘어 근대를 여는 종교 개혁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론적 원천이 되고 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루터(M. Luther)와 칼빈(J. Calvin)의 개혁적 신학이론이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재발견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신학적 영향력은 중세와 근대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마리탱(J. Maritain), 니버(R. Niebuhr), 틸리히(P. Tillich)와 칼 바르트(K. Barth)등 현대 신학자들이 그를 연구했으며, 신학의 발달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적 전개라고 말하기도 한다.²⁾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특히 그의 교육사상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종합으로 가장 독창적인 교수학습이론인 신적조명설(divine illumination)을 내세웠다. 이 학설은 그의 철학 및 신학의 핵심에 토대를 둔 것으로, 존재론과 인식론의 3위계론에서 하느님, 인간, 사물의 실체(reality)와 앎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바탕 하여 앎의 내용을 감각적 경험에서 유래되는 지식(scientia)과 영원불멸의 신적 이지(理知, ratio)에 속하는 지혜(sapientia)로 구분하였다. 지식과 지혜의 교수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습자는 어떻게 배우는가 등을 심도 있게 밝혔다.

종교 교육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sapientia)의 교수학습론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헬레니즘적 교육사상인 플라톤의 회상설에 동의하여 교사는 가르칠 수 없고 학습자 스스로 지혜를 알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 아는 것이 전생의 기억을 회상한다고 보지 않는 점이 다르다. 그는 오직 하느님 또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진리를 비추어주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독창적인 주장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우

1) R. Battenhouse, "The Life of Augustine",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54.

2) D. Daniel, "The Significance of St. Augustine Today",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Baker Book House, 1979), p.4.

구스티누스의 종교교육사상을 고찰하되 신적조명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은 그의 여러 저서에 걸쳐 있지만, 신적조명설에 관한 것은 『교사론』(De Magistro), 『기독교 교육론』(De Doctrina Christiane)에서 주로 다루었고, 『삼위 일체론』(De Trinitate), 『고백록』(Confessionum), 『자유지의론』(De Libero Arbitrio), 『참종교론』(De Vera Religione) 등의 저술에서도 신적조명이 언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II절에서 그의 존재론의 3위계 설을 소개하고, 앞의 두 체계인 감각적 지식(scientia)과 영원한 지혜(sapientia)를 살펴본다. III절에서 인식론적 체계를 소개한 후 IV절에서 이의 교육학적 논의와 조명설을 고찰하고 V절에서 종교 교육적 의의를 논한다.

II.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과 지식체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회심 이전의 정신적 방황기에 마니교의 선악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졌으며,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플라톤주의에 경도되었었다.³⁾ 그래서 그의 세계관에는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의 영향이 적지 않았으며, 그의 철학상 주 요소마다 플로티누스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심신(心身)관계, 학습이론, 조명설과 상기설 등 많은 분야에서 신플라톤학과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밀접한 상호 관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로티누스의 단순한 추종자가 아님은 물론이며, 그의 독창적인 이론의 다른 원천은 기독교 성경에 있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헬레니즘 사상과 성경으로 전승된 헤브라이즘 사상을 종합 대성하여 중세 시대를 풍미하는 대 철학 체계를 정립하였다.

존재론에 관하여 실재(reality)의 3단계 설은 플로티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의 동형(isomorphic)대응을 이루고 있다. 플로티누스는 존재론을 유일자(The One) - 정신 - 물질의 3위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God) - 영식(Soul) - 물체(Bodies)의 3위계 설을 세웠다.

가장 큰 차이는 유일자(The One)와 하느님(God)의 대비라 하겠으며, 정신과 영식(Soul)⁴⁾도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유일자는 모든 정신과 신체로 구성된 개별자들의 원천이란 점에서는 하느님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느님’은 성경에 바탕한 삼위일체의 인격신으로서 구체적인 창조주이며 구세주로 항상 우리에게 임해있다는 점에서 플로티누스의 초월적인 이성(理性)의 정점과는 다르다. 이점이 헤

3) A. Augustinus, *Confessionum*, V. 19. 20, 김광채 옮김, 『고백록』(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5), p.137.

4) Soul은 보통 영(靈)으로 사용되나 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앞의 측면이 강조되므로 영식(靈識)이라 했으며 이 논문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용어로 보아야 한다.

브라이즘적 사상의 핵심이며,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 헬레니즘의 이신(理神)론 적 사상과 달라지는 단초가 된다.⁵⁾

실재(reality)의 3위계 각각에는 이지(理知, ratio)가 대응한다.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는 영원불변이며, 모든 존재하는 개별자들의 원본이며, 하느님의 정신(Mind)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불생불멸하고, 생멸하는 모든 것은 이것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적 원형(form)에 대응하는 것으로 신적 이데아라 할 수 있겠다. 플라톤 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 모형이 마음에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었다. 하느님 역시 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설계가 있었으며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원형이자 존재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플라톤 자신은 이데아나 이데아적 원형을 논할 때 하느님(神)과 연관해서 논지를 전개하지 않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헤브라이즘의 하느님 사상과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존재론을 구성 하였다.⁶⁾ 그의 이러한 존재론적 관점은 그의 인식론과 교수 학습론에서 신적조명(divine illumination)이 성립하는 기반이 된다. 왜냐면 인간이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획득했을 경우 그것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준거는 바로 이 신적 이데아 즉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가 되기 때문이다.

실재의 최하위 단계인 물체(bodies)에 대응하는 이지(理知)는 물질적 이지(rationes seminales)로서 현대적인 용어로는 ‘사물의 원리나 법칙’이라 하겠다.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사물들의 돌아가는 이치가 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잠재된 원리를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영식(souls)에 역시 이지가 있기 때문이며, 이 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학습이론의 또 다른 배경이 되며 그의 지식체계가 이원론적 분지를 하는 소이가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식(souls)을 실재(reality)로 보았으며, 이 영식이 갖춘 이지를 ratio hominis라 했다. 현대적 용어로는 인간의 이성 혹은 정신적 기능 정도로 볼 수 있으나, 그의 독특한 이원론적 관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인간적 이지(ratio hominis)라 하겠다. 그의 존재론적 위계와 이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적 위계와 이지

하느님(God)	—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
영식(Souls)	—	인간적 이지(ratio hominis)
물체 (Bodies)	—	물질적 이지(rationes seminales)

5) R. H. Nash, *The Light of the Mind: St. Augustine's Theory of Knowledge*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Lexington, Kentucky, 1969), p.4-5.

6) *Ibid.*, p.6.

그는 인간적 이지(ratio hominis)를 상등 이지(上向理知, ratio superior)와 하등 이지(下向理知, ratio inferior)로 이분했다.⁷⁾ 상등 이지는 최고의 실체인 신적 이지를 보는 영식의 기능이고, 하등 이지는 가시적 사물들을 파악하는 기능이다. 이는 동일한 영식이 두 가지로 기능함을 의미할 뿐 인간에게 두 종류의 이지가 따로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⁸⁾ 이원적 기능이 등장하는 것은 그의 3원적 존재론에서 인간의 영식(souls)이 중간에 있기 때문인데, 이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고유의 특징적인 지식체계가 나온다. 먼저 하등 이지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지식(knowledge, scientia)이라 하고, 상등 이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지혜(wisdom, sapientia)라 하였다. 이 두 종류의 앎은 서로 대응하는 짝을 이루는 바, 지식(scientia)은 오늘날 용어로는 분과학문 또는 과학(science)이라 할 수 있겠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학문적 영역이라 하겠다. 반면 지혜(sapientia)는 오늘날에는 종교나 신앙적 체험의 세계에 속하며, 철학이나 신학까지도 scientia적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은 그 대상, 방법, 결과가 서로 대조적으로 다르다. 지혜는 진리 특히 하느님의 진리를 직관적 방법으로 관조 하는 것이다. 반면에 지식은 사물들을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인간 활동을 얻게 한다. 쉬운 예로 자연과학적 연구로 공학적 기술을 개발하여 교통을 발달시키고, 질병을 고치는 등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지혜와 지식으로 앎을 분류한 것은 좋고 나쁨이나 필요와 불필요의 양분을 한 것이 아니다. 그는 둘 다 필요함을 인정한다. 지식으로 얻어진 인간의 능력이 삶의 보존과 향상에 필수적이며, 이 능력이 sapientia를 얻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scientia는 수단과 도구에 해당하며, sapientia는 목표나 목적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을 얻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하느님의 지혜를 얻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⁹⁾

지식과 지혜의 위계 성을 논하는 다른 측면은 그 앎이 얻어지는 과정에서 논의된다. 인간은 5감으로 물체를 파악하지만, 그 파악한 내용에 대한 앎의 형성은, 단순한 5감 자료의 집적이 아니라, 상등 이지(ratio superior)로 보는 영원보편의 표준(이데아)에 근거한 판단에 의거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scientia)은 감각되는 물체들에 관한 것임과 아울러 불변의 이데아 적 요소가 함께 들어 형성된다. 지혜(sapientia)는 물체들에 관한 것이 아닌 순전히 신적 이지(ratio aeterna)에만 관련된 것이다. 이런 인식론적 측면에서 지혜는 지식보다 더 높은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¹⁰⁾

7) A. Augustinus, *De Trinitate*, XII.15,24-25, XIII, 1.1-2, 김종흠 옮김, 『삼위일체론』(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pp.334-335, 338.

8) Ibid., XII. 3. 3. p.317.

9) A. Augustino, *De libero arbitrio*, II.13.36., 성염 역주, 『자유 의지론』. (서울: 분도출판사, 1998), p.227.

10) *De Trinitate*, XII. 2. 2. p.296.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의 3위계설(하느님, 영식, 물체)과 앎의 2차원설(지혜(wisdom, sapientia); 지식(knowledge science))은 그의 인식론과 교수학습이론의 토대가 되며, 그리스도에 바탕한 종교교육의 원천이 되고, 또한 그의 독창적인 조명설이 설정되는 무대를 제공한다.

Ⅲ.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과 교수학습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적 위계는 그의 존재론적 3위계설과 정확히 1:1 대응을 이룬다. 인간은 3가지의 관(觀)을 할 수 있는 바, 그 중 가장 낮은 위계는 색관(色觀, corporeal vision)으로 빛으로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이 5감으로 사물을 감지하는 것이다.¹¹⁾ 이는 존재론의 물체(bodies)에 상응하는 인식이다. 두 번째 위계는 영식관(靈識觀, spiritual vision)으로 이것은 존재론에서 영지(靈知, soul)가 하는 관인 바 정신작용에서 물체들의 영상(images)을 만들고 처리하는 능력이다.¹²⁾ 그러므로 오늘날의 영(靈)적 또는 spiritual 이란 용어가 가리키는 의미보다는 지(知)적 영상화 능력에 가까운 것이다. 오늘날의 영적인 관을 그는 오히려 지성관(知性觀, intellectual vision)이라 불렀으며,¹³⁾ 하느님의 지혜에 관한, 영원한 아이디어를 보는 관이다.¹⁴⁾

그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3위계 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대응 표와 같다

존재론적 위계와 이지	인식론적 위계
하느님(God)-rationes aeternes	지성관(知性觀, intellectual vision)
영식(Souls)-ratio hominis	영식관(靈識觀, spiritual vision)
물체(Bodies)-rationes seminales	색관(色觀, corporeal vision)

아우구스티누스의 2원론적 지식체계인 지식(scientia)과 지혜(sapientia)를 인식론적 위계에서 보면, 지혜는 지성관(intellectual vision)에서만 얻어진다. 이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과 그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관조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이고 영원불멸한 덕목들은 최상위의 인식에 속하며, 여기서 보는 지혜가 인간의 궁극적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종교교육의 토대를 제공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식의 획득에 관한 이론에서 지식과 지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신적

11) *De Genesi ad litteram liber imperfectus*, XII. 7. 16.

12) *Ibid.*, XII. 9. 20.

13) *Ibid.*, XII. 10. 21.

14)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spiritual)과 지성(intellectual)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과는 반대로 쓰이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를 고찰하는 것이므로 그의 개념 사용을 따른다.

이지(rationes aeternae) 또는 신적 이데아이다. 감각적 자료에 바탕 하는 지식(scientia)조차도 단순히 자료의 정보와 처리 기능만으로는 앎이라 할 수 없고 반드시 진리적 또는 이데아 적 표준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식으로서 정합성이 있는 앎이 된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동물도 감각 자료의 정보처리능력 즉 저장, 회상, 연산 등의 기능이 있으나 신적 이데아와 관련짓는 정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능력과 다르다고 보았다.¹⁵⁾ 오늘날의 비유로는 컴퓨터의 영상정보 처리 기능을 인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와 인식의 3위계론 적 관점에서 앎(지식과 지혜)의 학습가능성은 인간의 영식(souls)에 그의 지성관(intellectual vision)을 통해서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 즉 ‘영원불변한 진리의 표준’들을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의 가능성은 그의 존재론적 최상위인 하느님이 곧 진리이며, 하느님은 피조물인 모든 하위의 실체(reality)들에게 이 진리들이 구현되도록 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예로 그는 논리적 원리들 까지도 단순한 형식적 약속이 아니라 존재론적 구체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논리적 결론의 본성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논리를 찾아내고, 가르치고 배울 뿐 만들 수는 없다. 논리란 사물의 영속적 질서이며, 하느님이 창조와 함께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¹⁶⁾ 수학적 진술들 예를 들어 덧셈의 규칙과 같은 것들이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 낸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지를 구현한 영원한 진리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수학적 진술들의 진리성은 아우구스티누스나 플라톤의 교수학습 이론에서 설득력 있는 예로 등장한다. 대수적 진술의 진실성은 예로 $2+4=6$ 은 분석적이거나 공론적(tautological)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이 20세기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t)의 주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견해에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그는 수학적 지식은 감각적, 정보획득과 처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학적 등식의 참은 사람의 눈이나 신체적 감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 이미 주어진 것이다”¹⁷⁾고 했으며, 칸트식의 용어로는 경험 이전의 선천적 형식에 가깝다. 수학적 지식들은 경험에 바탕 한 지식이 아니란 것이다.

신적 이지에 속하는 것으로는 수학적 진술들, 음계의 조화관계, 도덕률 등 보편 필연적인 진리들과, 플라톤의 이데아,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한 원리들, 또는 하느님의 마음 등이다. 지식(scientia)의 획득은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영식(souls)의 하등 이지(ratio inferior)에 의해서 정보처리를 하여 정리를 하고, 다시 상등 이지(ratio superior)에 의해서 하느님의 이지(rationes aeterna)의 영원불변한 진리표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비로소

15) *De Trinitate*, XII. 1, 1-2, p.315.

16) A.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II. 32. 50, 김종흡 옮김, 『기독교교육론』(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p.87.

17) A. Augustinus, *De vera religione*, 30. 55., 김영국 역, 『참 종교론』 어거스틴 저작집 제2권 (서울: 소망사, 1983), p.291.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연필로 삼각형의 모양을 그리고 3개의 각도의 합을 구하면 180도에 가까운 값이 나오지만 확실성과 필연성을 갖고 정확히 180도란 것은 오직 신적 이데아에 속하는 기하학적 법칙으로만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변적인 감각적 정보에 바탕 한 지식은 인간이 갖고 있는 확실하고(certain), 필연적(necessary)이며, 불변하는(immutable) 지혜(sapientia)를 설명할 수 없다. 실은 지혜의 근원인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 즉 영원불변한 진리들이 오히려 지식의 성립 기반이다. 달리 말해 지식은 경험적 감각의 자료와 경험이전의 신적 이지의 결합으로 획득된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획득 가능한 것일까? 예를 들어 수학적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은 그의 가장 독창적인 학습이론인 신적 조명설(divine illumination)이다. 경험의 세계를 초월한 수학적 진술의 진리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내적인 빛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감각적 기능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¹⁸⁾ 다음 절에서 조명설을 상세히 다루기 위해서 먼저 지식과 지혜의 교수학습이론을 고찰해보겠다.

영원불변의 진리들인 지혜(sapientia)를 경험만으로는 알 수 없음을 논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이 교사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울 수 없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서 그는 삶의 내용인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그의 명저 『교사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교사론』은 아들 아테오다투스와의 대화록이며 서기 389년 타가스테에서 쓰여졌다. 『교사론』의 내용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지며, 제1부에서는 언어와 기호의 교수 학습론적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 제2부에서 신적조명설이 논의된다. 제1부에서는 먼저 교수학습은 언어와 기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논한다. 언어는 집합론적으로 기호의 부분 집합임을 보이는 등 명사, 언어, 기호의 정의와 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하면서 가장 넓은 개념인 기호에 의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태를 예를 들어 분석 한다.¹⁹⁾ 결론은 기호 없이는 교수 학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의 긍정적 기능에 관한 논의에서 방향이 바뀌어 다음에는 “기호로는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는 부정적인 논지를 펼친다.²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논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의 이율배반적 측면이다. 학생이 교사가 하는 기호(말)의 뜻을 모를 경우는 그 기호를 아무리 반복해서 보여주어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미 그 기호(말)의 뜻을 알고 있으면 교사의 지시하는 바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이미 알고 있으니 배운 것이 아니란 것이다. 즉 학습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뜻이다.²¹⁾ 이 논의는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의 문장에 나오는 단어 두건(saraballae)을 예로 들어 가르칠 수

18) *De libero arbitrio*, II. 8, 23. p.199.

19) *De magistro*, IV. 8., VII., pp.181-197.

20) *Ibid.*, X. 34. p.216.

21) *Ibid.*, X. p. 210.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면서 진행 된다. 이 과정에서 “기호(언어)가 주어점으로서 그 지시 대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실제 자체를 앎으로써 기호를 배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학습자에게 대상을 탐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지, 대상을 알 수 있도록 대상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못한다.²²⁾

그가 언어(기호)에 의한 교수학습에 관한 이율 적 배반을 논구한 목적은 교수학습에서 기호의 불필요성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유명한 교수학습설인 조명설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IV. 교수학습론에서 조명설

아우구스티누스의 앎의 체계에서 지식(scientia)과 지혜(sapientia)의 분류는 감각적 정보의 포함여부로 분류된다. 지식은 감각으로 얻은 정보에 신적 이데아의 표준이 적용되므로 교수학습이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혜는 ‘하느님의 이지(rationes aeternae)’에 속하는 보편타당하고, 필연적이며, 불변이고, 영원한 진리들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감각의 경험으로는 학습이 불가능하다. 지혜 교수학습의 다른 가능성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어(기호)를 통한 교수학습이 불가능함을 그의 『교사론』에서 논증하였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 획득의 방법인 감각적 경험과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지혜의 교수학습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지혜의 획득은 어떻게 일어날까?

수학적 진술과 같은 보편, 필연, 불변적 진리가 지혜의 가장 익숙한 예인 바, 이를 배우는 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학설은 플라톤의 회상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이다. 이 두 학설은 수학적 진술, 도덕률 등이 경험에 의해서나 교사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교수학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는 것 또는 기억(remembering)해내는 것이란 점에서도 일치한다. 교사의 역할은 진리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자신에게 이미 있는 진리를 보도록 촉구하는 것이란 점에서도 같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습자가 어떻게 이미 알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크게 다르다. 플라톤은 인간이 이데아 적 진리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전생부터 알고 있는 것을 회상(recollection)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식(靈識 souls)의 전생을 전제로 하는 발상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생의 개념 없이 진리의 내재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22) *Ibid.*, X. 33-36, pp.214-217.

“학습이란 단순히 기억해 내는 것(remembering) 또는 상기 하는 것(recalling) 이라고 하는 나의 진술은 영식(soul)이 과거에 다른 몸(전신前身)에 있었거나, 혹은 현생(現生)의 몸의 안 또는 밖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사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²³⁾

『삼위일체론』에서도 역시 영식의 전생학습을 부정한다. 구체적 예로 플라톤이 『메노(Meno)』에서 무식한 노예 소년조차 기하학적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전생에 배운 것을 회상해 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것은 전생에 기하학을 배운 사람은 극히 일부의 사람에 불과 하므로, 금생에서 누구나 기하학적 지식을 회상해 낸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그러면 어떻게 보편타당한 진리들을 이미 알고 있으며, 또한 기억해낸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를 위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기억해냄(remembering)’의 기술적 의미가 과거에 알았던 것을 회상한다는 뜻보다 더 광범위한 뜻으로 쓰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맞게 질문을 한다면,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천성에 신적 이지 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플라톤 등이 생각했던 것처럼 전생에 알았다가 금생에 잊고 있었던 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다.²⁵⁾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억해냄은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현재적이다. 항상 주어져 있으나 잠재적인 상태로 있어 들어나 있지 않는데, 신의 빛을 비춤으로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 관과 학습이론은 신적 조명설에 의해 플라톤과 크게 달라진다.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에 속하는 보편 영속성의 진리들은 이미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 인간 각자의 마음에 주어져 있으나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이러한 잠재적 상태에 있는 진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기억(memory)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억은 이런 뜻을 포함한다. 기억해냄(remembering)은 이런 들어나지 않은 진리들을 신적 조명(divine illumination)으로 비추어 학습자 자신의 의식에 들어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의 학습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수학습론은 다음의 『교사론』의 인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sapientia)에 대해 우리는 아마 말로 상담하도록 강요되고 있지만, 우리는 밖에서 울리는 그 말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깊숙이 정신을 관장하는 진리와 상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상담할 분은 우리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즉 불변하신 하느님의 능력, 영원한 지혜이다. 그러므로 영식(靈識 souls)의 상등 이지(ratio superior)는 그 분(영원한 지혜, 그리스도)에게 묻는다”.²⁶⁾

23) *Retractionum*, I. 8, 재인용; R. Nash. op.cit., p.82.

24) *De Trinitate*, XII. 15. 24. p.334.

25) *Retractionum*, I. 4.

그러므로 지혜는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식 안에 항상 있는 진리를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어줌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보는 것이다. 교사는 언어(기호)를 통해 진리를 보도록 촉구하거나 도와줄 뿐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교사는 그리스도 즉 진리의 빛이신 하느님뿐이다. 그리스도가 빛이란 것은 요한복음서에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²⁷⁾는 것과 같다.

신적조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학파는 인간의 지성관(知性觀, intellectual vision)이 곧 신의 빛(divine light)이라고 본다. 프란치스코 학파는 신의 빛은 하느님 자신이며, 이 빛이 인간의 영식에 진리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들어온다는 주장이다. 한편 코플스톤(Coplestone)과 길슨(Gilson) 등 형식론자는 신의 빛은 진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확실성 등 특성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반해 내쉬(Nash) 등은 존재론적 해석을 펴고 있다.²⁸⁾ 인간은 신적 이데아 즉 신적 이지(rationes aeternae)에 있는 진리들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신적 조명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조명설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종교 교육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고찰 하고자 한다.

V. 아우구스티누스 조명설의 종교 교육적 의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학파로 대변되는 헬레니즘과 신구약 성경으로 집약된 헤브라이즘의 종합을 통하여 중세 시대를 연 대사상으로 꼽힌다. 특히 그의 교육사상을 잘 보여주는 『교사론』은 이러한 종합의 전형적 예를 보여준다. 플라톤의 ‘회상’설이 한 축이고, 사도 바울이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 하십니다”²⁹⁾라고 한 ‘하느님의 교육’ 이념과 요한복음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³⁰⁾는 이 말씀이 다른 축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은 그대로 종교교육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헤브라이즘의 계승에 연유하며, 그의 존재론, 인식론, 지식체계론 역시 그대로 종교교육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것도 같은 연유이다.

종교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그의 삶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26) *De magistro*, XI. 38. p.219.

27) 요한복음서 1장 9절.

28) R. Nash, op. cit., pp.103-123.

29) 고린도 전서 3장 6-8절.

30) 요한복음 1장 9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이며 영원불변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느님 신앙’ 만이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점에서 바로 종교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향한 학습의 목표는 지식(scientia)이 아닌 지혜(sapientia)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영원불변의 지혜를 보도록 그의 영식(soul)이 상등이지(ratio superior)를 써서 지성관(知性觀, intellectual vision)으로 관조(contemplation)하게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지식 체계론[scientia와 sapientia], 존재론[하느님, 영식, 물체]적 이지론[rationes aeternae, ratio superior], 인식론[색관, 영식관, 지성관]의 체계는 종교교육의 토대이론을 구성한다.

『교사론』을 비롯한 그의 교수학습 이론은 사실상 종교교육의 교수학습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신적 조명설은 학습자가 지혜(sapientia)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는 것이며 비추는 것이란 관점을 보여줌으로 인간의 지혜학습은 하느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궁극적 행복을 찾거나 얻을 수 없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적 조명론은 세 가지 중요점이 있다. 첫째, 하느님은 빛이시며, 모든 사람을 비춘다. 둘째, 지성 관으로 관조할 수 있는 진리들(rationes aeternae)이 인간의 마음에 이미 있다; 셋째, 학습자는 이 진리를 하느님이 비춤으로써 볼 수(觀)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궁극적 행복에 이르는 지혜(sapientia)를 하느님의 조명(illumination)으로 보아 알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능동적 관심(attention)을 가지면 볼 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종교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나온다. 교사는 학습자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일 뿐, 지혜 자체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은 『교사론』의 결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말 하고 있다.

이는 내 질문을 받고 네가 다 대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말해 온 것이 참이란 것을 네가 모른다고 하면 나도, 그(내적 교사)도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절대로 너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는 여전히 배울 능력이 없고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³¹⁾

학습자가 배울 능력이 있는 것은 자신의 내적 진리를 관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학문을, 덕이라던가 지혜의 학문까지도 말로 설명할 때, 학생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이를 테면 자기 능력에 따라 내적 진리에 관조(觀照)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부 깊이에서 숙고하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다.³²⁾

학습자가 내적 진리를 관조하여 지혜를 보는 것은 오직 신적 조명이 있기 때문이며, 따

31) *De Magistero*, 결론, p.229.

32) *Ibid.*, XIV. 45. p.227.

라서 진정한 교사는 이 빛을 비추는 분, 그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 또는 하느님 뿐 이시다.

그런데 모든 선생 중의 선생은 한 분으로서 하늘에 계신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의 어떤 사람도 교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신성한 권위에 입각하여 진실 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깨닫기 시작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유일한 교사 자신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유일한 교사는 내적으로 그 자신에게로 우리가 회심하도록 환기시키기 위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혹은 기호로 외부에서 경고를 준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는 것은 복 있는 삶인데, 모든 사람은 그것을 구하지만 그것을 찾아 기뻐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밖에 되지 않는다.³³⁾

『교사론』의 마지막 장의 끝에 나오는 이 인용문은 종교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는 것은 복 있는 삶인데”, 모든 사람이 이 궁극적 복을 구하지만 극히 소수만이 찾아 기뻐한다는 것은 현대적 상황에서도 종교교육의 존재근거이자 강령이며 감각적 지식(scientia)교육에 경도된 교육현실의 치유책이 된다 하겠다.

VI. 토 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종합하여 그의 독창적인 사상을 만들었다. 존재론적 측면에서보면 3위계의 실체를 설정한 점에 플로티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유사한데, 신플라톤주의는 유일자(The One)라는 일종의 추상적 최상위 실체를 둔데 반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상의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영원불변한 진리의 부여자이며 최상의 진리 자체이고, 빛으로 파악한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유일자와 하느님은 최상위 실체란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로부터 유도되는 사상의 전개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커진다. 종교교육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플라톤주의에는 신앙이 없고, 이성만이 강조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faith)이 이성(reason)보다 더 강조된다. 플라톤을 위시한 고대 그리스 철학사조인 주지설(主知說)에 대립되는 주의설(主意說)을 주장한 것이다. 이로부터 그의 유명한 인식론 표어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게 된다’가 나온다. 그래서 믿음(faith)이 이해에 앞서고, 믿지 않으면 하느님을 결코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맹목적인 교조적 신앙의 강요를 말하진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합리적인 이해의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유한한 인간이 무한(infinite)한 하느님을 보려면 하느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 도움은 신앙을 통해서 인간에게 비추어줌(illumination)으로 온다.

33) *Ibid.*, XIV. 46. p.228.

영원불변의 진리들은 모두 신적 이지(ratione aeternae)에 속하며, 여기에 속하는 진리의 앎을 지혜(sapientia)라고 한 점은 플라톤이 영원불변의 이데아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혜의 획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하여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도 유사한 바가 있다. 즉 감각적 정보를 귀납하는 경험적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치하며, 교사가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또한 학습자의 마음에 이미 이런 지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존재론상의 최상위 실체인 하느님의 있고 없음에 기인한다. 플라톤은 학습자의 회상으로 된다는 것이며, 교사는 이 회상을 돕는 산파와 같다고 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식의 전생 학습설을 비판하고, 지혜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늘 주고 있으며 다만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어질 때 이를 보게 된다는 조명설(illumination)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빛의 조명을 받는 일은 신앙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믿음(faith)이 이성(reason)에 우선하며 돕는 일을 한다. 교사는 진리의 전수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며, 진정한 교사 즉 가르침을 주는 분은 하느님의 빛인 그리스도이며, 이분이 인간 내면에서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런데 행복의 추구는 진리를 얻는 것과 불가분리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의 『자유지의론』에서 말하기를

진리 속에서 최고선이 인식되고 견지되며, 그 진리가 곧 지혜인 만큼, 우리는 진리 속에서 최고선을 식별하고 견지하고 최고선을 향유토록 하자. 최고선을 향유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바로 이 진리가 저 모든 선들을 (선한 것으로) 밝혀주는데, 저 선들은 곧 참된 것이기도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저 선들을) 인식하면서(저 선들 가운데)하나씩 또는 여럿을 골라서 향유하는 것이다.³⁴⁾

하느님은 진리 자체이며, 진리의 빛이며, 지고의 선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을 통하여 최고의 선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며, 인간 지식의 궁극적 근원이요 인간 삶에 있어서 지고의 선과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종교교육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의의가 있으며, 특히 현대와 같이 물질주의와 감각지식이 풍미하는 세계에서 고뇌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추구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4) *De libero arbitrio*, II. XIII. 36, p.227.

참고문헌

-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발행, 1977.
- 김동구, 「Augustine의 교사에 관한 철학」, 『학생생활연구』 제5집, 청주사범대학 학생생활연구소, 1987.2.
- 김재은, 「성 어거스틴의 교육론」, 『신학과 세계』 33, 감리교신학대학교, 1996.
- 김성진, 「현대의 윤리적 상황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 『중세철학』 제8호, 한국 중세철학연구소 편, 왜관: 분도출판사, 2002.
- 양명수, 『어거스틴의 인식론』,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이석우, 「자유 의지와 역사」, 『건대사학』 10, 건국대학교 사학회, 2003.
- _____,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민음사, 1995.
- _____, 「어거스틴의 교육사상」, 『서양고대사연구』 3, 한국서양 고대역사 문화학회, 1995.
- 주영흠,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7.
- _____, 「Augustinus의 교사론 연구: 기호학습과 인식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Vol. No.15, 총신대학교, 2005.
- 정현숙,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 의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 본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6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2).
- Augustinus, A. *Confessionum*, 최민순 옮김, 『고백록』,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3.
- _____, *Confessionum*, 김광채 옮김, 『고백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_____, *De Civitate Dei*, 조호연·김종흡 옮김, 『신국론』, 서울: 현대지성사, 2002.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김종흡 옮김, 『기독교교육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_____,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주, 『그리스도교 교양』,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_____, *De libero Arbitrio*, 성염 역주, 『자유 의지론』,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_____, *De Magistro*, 김영국 역, 『교사론』, 어거스틴 저작집 제2권, 서울: 소망사, 1983.
- _____, *De Trinitate*, 김종흡 옮김, 『삼위일체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_____, *De Vera Religione*, 김영국 역, 『참 종교론』, 어거스틴 저작집 제2권, 서울: 소망사, 1983.
- Babcock W. S. *The Ethics of St. Augustine*, 문시영 옮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8.
- Howie, G.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St. Augustine*,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69.
- _____, *St. Augustine: On Education*, South Bend, Indiana: Gateway Editions, Ltd.

1969.

Garry, Wills, *Saint Augustine*. 안인희 옮김. 『성 아우구스티누스』. 파주: 도서출판 푸른숲. 2005.

Nash, Ronald H. *The Light of the Mind: St. Augustine's Theory of Knowledge*.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69.

원고접수: 2009년 5월 5일 1차심사: 6월 4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소개: 정현숙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② 관심영역: 영성교육, 종교와 심리, 성인들의 영성

③ 주요논저: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종교’원리의 원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 본 신앙교육」

④ E-mail: hschung@suwon.ac.kr

Abstract

Augustine's Thought on Education with Divine Illumination and its Significance in Religious Education

Chung, Hyunsook

Suwon University

Augustine's ontology consists of a 3 level hierarchial structure of reality woh God, Soul, and Bodies. Corresponding to each of these three levels of reality is a principle or ratio. They are the rationes aeternae, the ratio hominis, and the rationes seminales. Augustine distinguished two kinds of knowledge: Scientia(knowledge) is the knowledge on the physical bodies, and sapientia(wisdom) is the knowledge on the rationes aeternae. Sapientia is concerned with the acquisition of happiness and the ultimate goal of human existence. The ultimate goal of sapientia is the truth of God, which alone can bring true blessedness. The learning of sapientia is independent of experience, and sapientia is not possible to teach by a teacher. It is Augustine's originality to introduce the theory of illumination in learning sapientia. According to his thought of divine illumination man does not acquire sapientia through sense experience or through Platonic recollection or through teaching. The true teacher is Christ, who Himself is the truth and who illuminates every man. His theory of divine illumination is a great thought unifying Helenism and Hebraism providing the goal, principle, theory and practice of learning of religious education. It is a exemplary model of religious education that is still significant in the present society.

Key words : Lerning, Religious Education, Knowledge(scientia), Wisdom(sapientia), Divine Illumination